



3면

“국회, 대선후보 논의보다 자성 먼저”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음 3월 12일)

제371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본격

도, 올해 총 104억원 투입... 콘텐츠 제작·교육 등 포함 15개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총 104억원을 투입해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콘텐츠 제작과 교육, 시장 진출을 포함한 15개 주요 사업이 추진되며, 콘텐츠 기업의 생애주기와 장르에 맞춘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된다.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김성규 원장은 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원장은 “올해도 K-문화 기반 콘텐츠와 ICT 융합산업육성으로 전북자치도의 경제·사회·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전북콘텐츠코리아랩 △레드콘텐츠창작소 △전북웹툰캠퍼스 등 콘텐츠 산업 기반시설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에는 80개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 신규 창업 32건을 이끌었으며, 수혜기업 매출은 247억원, 일자리는 365개 창출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예비 창업·창업자 발굴 및 육성과 교육 △스타트업 안정화 △콘텐츠 제작·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전북콘텐츠코리아랩(9.9억원)과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7.9억원)를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김성규 원장이 8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심으로 교육, 제작지원, 인턴십 프로그램이 집중 운영된다.

콘텐츠 장르별 특화 지원도 강화된다. 게임 분야에는 23억원을 투입해 제작지원과 상용화, 글로벌 진출, 인턴십 등을 추진하고, 웹툰 분야는 인건비 지원과 특화 콘텐츠 제작, 공모전 등을 통해 지역 작가를 육성한다. 음악 분야는 전북음악창작소를 통해 신인 및 기성 뮤지션에게 음반 제작과 공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미디어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도 실시된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단계별 교육과 함께 멘토링, 콘텐츠 제작 인센티

브, 연말 발표회 등이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거점 정책 거버넌스’를 통해 문화콘텐츠 정책의 현안을 논의하고 신규 사업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올해는 문화콘텐츠 진로·직업 원스톱 지원(14억원),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16억원) 등이 대표적인 신규 과제로 추진된다.

2025년 문화콘텐츠분야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누리집(www.jon.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번지는 불꽃’... 전북자치도 기능경기대회 한창



2025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가 한창인 8일,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자동차차체수리 부문에 참가한 선수가 진지한 모습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다.

6·3 대선 확정... 선거준비 체제 돌입

현재의 윤석열 파면 따라... 60일간 초단기 레이스 돌입

정치권, 유력 주자 출마 선언 등으로 대선 체제 전환 속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조기 대선으로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며,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최종 확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선관위는 발 빠르게 선거 일정을 공지하며 선거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으며 국외부재자 신고 마감일은 4월 24일이고,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이다. 이에 따라 출마를 원하는 공직자는 5월 4일까지 시작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작성되고, 재외국민 사전투표는 5월 20~25일 사이 전 세계 공관에서 실시된다. 내국인 사전투표는 5월 29~30일에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아닌 궐위에 따라 치러지는 만큼 일반적인 선거보다 한층 빠듯한 일정 속에 치러진다.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이며, 투표는 선거일 당일(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의 분위기는 벌써부터 달아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책임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과 메시지로 대선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복수의 주자군이 경쟁하는 다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수 핵심층의 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사실상 선두주자로 거론된다. 법무부 장관과 당대표를 지낸 한동훈 전 장관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유력 후보 중 한 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도 정치적 존재감을 과

시하며 출마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중심에 서 있다. 탄핵 정국에서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며 이 대표에 대한 대세론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로 출마 명분을 확보한 그는 20대 대선의 아쉬움을 씻기 위한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두관 전 의원은 출마를 가장 먼저 선언했고,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김동원 경기도지사, 영호남 통합 이미지를 내세우는 김부겸 전 총리, 사면·복권 후 정계 복귀가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잠재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심이다. 탄핵 사태로 보수 진영의 분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도 성향 유권자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수도권 민심도 주요 격전지로 주목된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혼란의 정국을 수습하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일지, 이제 선택은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이만호 기자

작년 딥테크 벤처투자 AI·바이오에 3조6324억원 몰렸다

중기부 발표... 전년 대비 34% ↑, 역대 최대치

우주항공도 성장세... 미래형 모빌리티 등은 주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국내 딥테크(Deep Tech) 10대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 규모가 총 3조6,324억원으로, 전년보다 33.7%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로, 벤처투자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딥테크 분야는 인공지능(AI), 바이오 헬스케어, 시스템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등 고난도 기술 기반 산업을 뜻한다.

중기부는 이번 발표에서 10대 딥테크 분야를 기준으로 벤처투자 현황을 분석했다. 올해 투자 1위는 바이오헬스케어로

1조2,140억원이 몰렸다. 2위는 인공지능(AI)으로, 9,694억원이 투자돼 전년보다 무려 75.1% 증가했다. 전체 딥테크 투자액 중 AI가 차지한 비중은 약 27%에 달한다.

AI 분야는 특히 세부 항목별에도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AI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분야에 6,605억원 투자 △AI 시스템 구축·관리에는 3,880억원으로 114% 증가 △AI 연산 장치 제조·설계는 1,655억원으로 무려 290.9% 급증했다.

AI 외에도 우주항공(92.5% ↑), 시스템반도체(59.7% ↑), 클라우드·네트워

크(49.1% ↑), 로봇(39.0% ↑) 분야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

반면, 미래형 모빌리티(-16.5%)와 양자기술(-20.1%) 분야는 전년보다 투자금이 줄어들며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투자받은 딥테크 기업 중 75%가 정부의 모태펀드나 창업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는 AI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딥테크 벤처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순창

찰뚝여행

청정 순창에서 봄나물 향연

2025. 4. 18.(금) ~ 19.(토)

순창 양지천 일원(양지교 및 천변)

주최 | 순창군 주관 | 순창농협 후원 | 농협 순창군지부 · 동계농협 · 서순창농협 · 구림농협 ·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